

한덕수 총리 “여순사건, 비극적 역사 되풀이 안돼”

보성서 10·19사건 76주년 추념식
“이날 잊지 않고 기억, 반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진상규명 약속
“필요한 조치·지원 요청할 것”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년을 맞아
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무총리와 국회의
장이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여수·순
천 10·19사건 76주년을 맞아 보성군 한
국문화문화원에서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를 주제로 열린 여순사건 제
76주기 합동추념식에 참석해 “아픈 역사는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
리가 이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다
시는 이처럼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
고 말했다.

추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
남도의회 의장, 주철현·조계원·김문수·
문금주·권향엽·신정훈·박군택·전하람 국
회의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기명 여수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공영민 고흥
군수 등이 참석했다.

박선호 여순 전국유족 총연합 상임대



19일 보성군 한국문화문화원에서 열린 ‘여순 10·19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유족 대표 등이 희생자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

표와 여순사건 유족 600여 명도 참석해
대한민국 비극의 현대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한 총리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무
고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사랑하는 가
족을 잃고 사회적 편견을 마주하며 오랜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
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2년부터 시행된 여순
사건법에 근거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조
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희생자 신고와 접수를 받았
으며, 본격적으로 희생자와 유족 결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여
순사건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추가
신고나 재조사 없이 여순사건위원회 직
권으로 희생자를 인정할 수 있는 길도 열
렸다”면서도 “여러분의 기대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여
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분들
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추념식에 참
석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는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
지 않도록 국회 의장도 나서겠다”고 밝혔
다.

우 의장은 “정부도 공권력에 의한 국민
의 피해와 희생을 규명하는 일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분명하게 해줄 것을 적극
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은 제주 4·3과 함께 우
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불행했던 역
사이자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역
사”라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것이 긴 세월, 여순 유족들
이 슬한 눈물을 삼키며 서럽게 지켜온 길
에 국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로 기억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군
과 경찰, 민간인 다수를 살해하면서 시작
됐다. 1949년 당시 전남 당국이 확인해
집계한 민간인 희생자 수는 1만여명이
다. 2006년 발간된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와 순천 지역의 확
인된 민간인 희생자 2402명으로 보고됐
다.

송민섭 기자



여수시, 방송인 윤택 홍보대사 위촉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기대

여수시가 최근 코미디언 윤택을 여수
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윤택은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tvN ‘코미디빅리그’ 등 유명 방송 프로그램
에 출연하여 얼굴을 알렸으며 MBN
‘나는 자연인이다’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
을 받았다. 또한 구독자 수 27만9000명,
누적 조회수 6368만 회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 ‘윤택TV’를 운영하며 방송과 소셜
미디어(SNS)를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
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윤택이 유튜브 자체 콘텐츠인 ‘오
지:객’을 통해 전국의 섬과 오지를 여행
하고 있어 여수가 가진 365개의 섬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효과적으로 흥
보할 적임자라고 판단해 위촉하게 됐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은 위촉패를 전
달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우
리 여수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택은 “금오도, 자봉도, 추도 여행에
서 만난 해상 비경과 섬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여수와
섬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
람회 홍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홍보대사 활동을 장려·
촉진하기 위해 ‘거북선 여수’ 소식지를
발송하고 시 주관 문화·관광 행사에 초청
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할 계
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구례군,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
신규가입 6개소 대상

구례군이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
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한 신규 가입 업소
에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착한가게 캠페인에 신규 가입한
가게는 6개소로 (자)거송전기, 칠성청
과, 풍년마트, 봉성방앗간, 송원마트, 이
미지산업기획이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원 이상 또는 매출
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약
정하여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한다.

구례군에는 이번에 신규 가입한 곳을
포함해 총 30개소가 착한 가게로 선정됐
다.

구례=김상현 기자

광양시, 사회복지박람회 성황
ESG 홍보·체험 부스 운영 등

광양시는 지난 17일 ‘2024년 광양시
사회복지박람회’가 광양커뮤니티센터에
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ESG 실천으로 행복한 광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사회
복지 관련 기관·시설·단체·시민이 상호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워크온 기부금 전달식, 기념
식, 사회복지 유공자(18명) 표창, ESG
관련 홍보·체험 부스 운영, ESG 강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홍보 및 체험 부스에 들러
ESG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
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최미정 명륜종합사
회복지관 과장이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ESG’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작은 실천
이 모여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음을 본인
의 경험을 담아 생생하게 전달해 참석자
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 17일 고흥군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4년 청렴!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청렴의지 다짐하는 ‘청렴! 도전 골든벨’

고흥군은 지난 17일 소속 공직자를 대
상으로 ‘2024년 청렴! 도전 골든벨’ 행사
를 개최했다.

이번 골든벨 행사는 청렴 시책, 청탁금
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다양한 청렴 상식
분야에 대한 퀴즈 풀이 방식으로 진행됐
다. 공직자들이 친근하게 참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방식으로 기획돼

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
다.

특히 공직자 간 화합과 수평적인 소통
을 다지기 위해 팀워크 강화 차원에서 마
련된 이번 행사에는 공영민 군수도 직접
참여해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결승 문제
를 출제하여 청렴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
였다.

후속 행사로 고흥군, 고흥군의회, 공무

원노조와 공공연대에서 주최한 공직자
화합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어, 고흥군 공
직사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자
리가 마련되었다.

공영민 군수는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
한 열정과 단합된 모습이 건강한 공직문
화를 조성하는 데 큰 활력소가 된다”며
“이번 행사는 청렴한 고흥을 만들기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자리이며,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청렴 고흥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 K-POP 페스티벌...“더 즐겁게 놀자”

제4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이 일주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양시가 축제
를 더 즐기는 방법을 소개했다.

총 4차에 걸쳐 1인 최대 2매까지 무료
로 배부되는 입장권은 지난 9일 온라인
(티켓링크) 티켓오픈을 시작으로 읍·면·
동민 대상 2차 배부까지 마친 상태다.

입장권을 구하지 못했다면 축제 전날
인 24일과 축제 기간인 25일, 26일의 현
장 배부를 노려볼 만하다.

입장권 3차 배부는 24일 진행된다. 광
양시민을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
지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선착순 배부되며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
4차 배부는 25일과 26일 전 국민을 대상
으로 진행된다. 오전 9시부터 입장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며, 고흥사랑기부제
연계 입장권 배부는 18일까지 기부제에
동참한 자로 제한한다.

공연장은 오후 3시30분부터 입장할 수

있다. 자유석 소지자는 정문, 지정석 소
지자는 행사장의 ‘가’ 문으로 공연 30분
전까지 입장을 완료해야 한다.

공연장에는 음식물 반입이 전면 금지
다. 그 대신 콘서트장 입구에 스테이크,
닭꼬치, 닭강정, 떡볶이, 김밥, 야끼소
바, 커피 등 다채로운 메뉴를 갖춘 푸드존
이 운영될 예정이다.

공연장 입장 관람객이 푸드존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라’ 문으로 퇴장했다가 이
용 후 정문(자유석) 또는 ‘가’문(지정
석)으로 재입장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친환경 쌀 판매계약 체결
장흥군 친환경농업협회

장흥군 친환경농업협회, 이레농업법
인, 한국친환경주식회사는 이번달 쌀 판
매계약을 체결해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확대에 나선다.

이번 계약은 장흥군 내에서 생산된 고
품질의 친환경 쌀을 보다 널리 공급하고
자 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세 기관은 이번 계약을 통해 친환경 벼
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
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믿
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흥군 친환경농업협회 관계자는 “이
번 계약을 통해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친
환경 쌀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방
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회사 이레농업법인과 농업회사법
인 한국친환경주식회사는 “이번 협약이
친환경 농산물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계
기가 되길 바란다”며 “높은 품질의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
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이번 계약 체결로 인해 친환
경농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